

인도 : 이영제 목사

목	도	다	같	이
기	원	인	도	자
찬	송 93장	다	같	이
교	독 30번	다	같	이
신	앙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162장	다	같	이
기	도	이	창	걸
성	경 사54:4-10	다	같	이
특	송			
설	교 예수님은 누구 신가?	이	영	제
		(10.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			
찬	송 308장	다	같	이
헌	금	다	같	이
봉	헌 기도	인	도	자
광	고	인	도	자
찬	송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와 인자하심이	다	같	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축	도	인	도	자



24시간 릴레이 중보 기도자

매일1시간 : 오전6시(차영숙) / 오후1시(이영제) 6시(김호선) 유동(이창걸)



주안교회 5대 실천강령

- ◇ 24시간 쉬지않는 릴레이 기도로 성도 자신이 성령받고 교우와 선교사를 위해 중보기도한다.
- ◇ 본 교우는 모두 주 예수그리스도를 바라고 예배하여,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예수의 제자가 된다.
- ◇ 모든 교회재정(십일조, 감사, 선교헌금 등)의 지출은 선교비를 최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 ◇ 선교에 주력하는 교회로 선교의 기틀을 마련하여 오는 세대에게 복음과 선교정신을 물려준다.
- ◇ 교회 내 모든 기관은 선교 체제로 조직 운영하며 자발적인 봉사와 헌신으로 운영한다.

주요교회 24시간 릴레이 기도제목

○ 주요교회를 위한 기도제목

24시간 릴레이 기도팀이 하루속히 완성되도록
교회의 파송선교사(김형주, 정00)님을 위해서
중국의 00교회와 리00전도사님을 위해서(방문을 위해서)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피아노 반주자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요교회 가족 모두가 주님의 축복으로 평안할 수 있도록

○ 이영제 목사님을 위한 기도제목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가 넘치도록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위해서
서울북노회 지도자 아카데미(드림교회) 강의(9월 8일),
중소교회 목회자 세미나(만나교회) 강의(9월 15일)를 위해서

○ KCM을 위한 기도제목

인터넷의 단비편지가 잘 준비되며, 전도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KCM 파송 및 협력선교사님을 위해서
멀티미디어팀이 잘 운영되도록
세계선교정보연구원 모임이 잘 활성화 되도록

○ 해외선교를 위한 기도제목

세계의 한국선교사님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사단의 방해가 물러가며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아직까지 복음을 한번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을 위하여
해외 선교를 위해 수고하는 국내의 선교단체들을 위하여

○ 민족을 위한 기도제목

민족 회개와 종교혼합주의, 미신, 무속 타파를 위해서
영적분별 능력과 영적 승리를 위해서
한국경제회복을 위해서와 실업자, 근로자 문제를 위해서
빈부격차 해소와 경제윤리 회복과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위해서
북한의 지하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식량난과 핵포기를 위해서

○ 가정을 위한 기도제목

부부관계가 회복되며 아름다운 가정을 회복하도록
가정폭력이 사라지고 가출과 탈선이 사라지도록



주일오후 2시 예배 / 히브리서 주석강해 설교

이영제목사가 직접 연구한 주석자료를 기초로 강해설교 합니다.

9:1-10 땅의 성전과 하늘의 성전

1절 **첫 언약에도 성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첫 언약을 말한다. “예법”은 δικαιώματα(디카이오마) “법령”과 λατρείας(라트레이아스) “예배”를 뜻하는 것으로 곧 규례를 말하는 것이다(출29:9, 레14:32). “세상에 속한 성소는” 출26:30에서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의 명령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다.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의 일컫고** 본 절은 세상에 속한 성소의 설명이다. 출30:1-10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해 사이에 있었던 ‘향단’은 설명하지 않는다. “등대”는 성소의 남쪽에 위치했고 가운데 중심 줄기와 양쪽에 3개씩 연하여 줄기로 되어있어 7개의 등잔과 22개의 꽃 모양 받침대가 있다(출25:31-39).

“상과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두줄로 놓여진 진설병을 차리는 상으로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먹는 떡을 가리킨다(출25:23-30, 레24:5-9).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성소와 구분되는 μετά(메타) “...사이에”로 간격을 말하는 것으로 ‘성소를 넘어’로 이곳에는 대제사장이 대 속죄일에 한해서 1년에 한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장벽을 상징한다(출26:31-33, 출26:33, 출27:20-21, 레16:16-17, 레24:3). 마27:51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위로부터’란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찢겨진 것을 말한다.

4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쓴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싹 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지성소에 있는 기물들을 설명한 것으로 원래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경계지점에 놓였던 것이다(출30:6, 출40:26). 본 절에서 저자는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 제사를 드리는 것을 생각한 것 같다. “언약궤”는 ‘증거궤’라고도 불렸으며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다(출25:22).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다.

- 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셨던 만나를 증거하는 것, 출16:32-34)
- ② 아론의 싹 난 지팡이(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제사장가계로 선택받은 증거, 민17:1-11)
- ③ 언약의 비석들(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십계명, 출25:16, 출31:18, 신9:9)

5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날날이 말할 수 없노라** 범계 위에는 속죄소(시은좌)가 있었고 이곳에 대속죄일에 희생 제물의 피가 뿌려졌다(출30장).

네 잎 크로바와 세 잎 크로바



이영재 목사
주앙교회 담임
한국기독교회 대표

제가 어렸을 때 이 풀은 토끼풀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네 잎 크로바는 행운이라는 꽃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폴레옹이 네 잎 크로바를 따기 위해서
몸을 굽혔을 때 충알이 날아갔다고 해서
목숨을 구했기 때문에 이 때부터 '행운'의 네 잎 크로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네 잎 크로바를 찾기 위해서
세 잎 크로바는 마음대로 짓밟습니다.
그런데 세 잎 크로바의 꽃 이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복'입니다.

우리는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짓밟지는 않습니까?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자에게 잘하면 행복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행운을 쫓기보다는 가까이 있는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앙교회 파송, 협력하는 선교사

남아프리카공화국 김형주 선교사 / 필리핀 정형구 선교사
베트남 정00 선생 / 중국 리00 전도사 / 인도 초띠옥이 자매
파키스탄 정00 선교사 / 미국 김능수 전도사

예배시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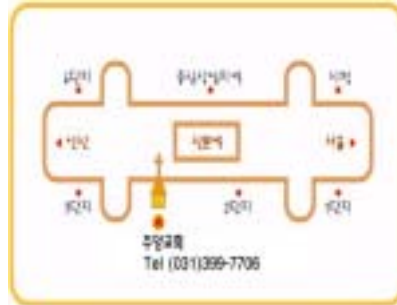
주일 오전 11:00 / 주일예배

주일 오후 2:00 / 찬양, 성경강해

새벽 5:00 / 새벽예배

수요 오후 7:30 / 삼일예배(주제별 성경공부)

금요 오후 9:00 / 심야예배(찬양과 기도집회)





제목 : 예수님은 누구 신가?

(9. 나의 뚝는 해이신 예수님) / 본문 : 눅1:78-79, 말4:1-2

대구유니버시아드에 참석한 북한 응원단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진이 함께 찍힌 현수막을 상기된 얼굴로 견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며 김정일 국방위원장 초상을 저렇게 낮은 곳에 걸려있고, 귀퉁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 맞으면 안 된다고 고이고이 접어가지고 갔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태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수령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심판 날에 임하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해'로 비유했습니다. '해'로 표현한 것은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처럼 우상화 시켜서 섬기라는 뜻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임하시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심판 날에 악인에게는 극렬한 풀무 불로 임하셔서 뿌리까지 태우십니다.

정원을 가꾸어 보신 분들이나 농사를 지으셨던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잔디밭이나 농지에 잡초가 자라나는데 잡초는 잘 보이지 않으려고 납작한 것이 많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아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더 깊이 박혀있습니다. 이것이 잡초들이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뿌리를 다 뽑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멀쩡한 것까지 뽑힐 염려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염려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뿌리까지 다 태우십니다. 완전한 결산을 하는 것이며 악은 모두 거두어 하나도 남김없이 그 근원을 모두 불로 태우신다는 것입니다(마 13:41-42).

그러나 의인에게는 의로운 해로 떠오르십니다.

어느 날 문득 저 동녘하늘에서 붉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는 순간 숨이 머물 것 같은 감동을 느껴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태양은 매일 떠오르지만 매일 새것입니다. 해가 없다면 이 땅의 동, 식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태양의 광선이 식물과 동물의 생명을 위해서 빛과 열을 주는 것처럼 '의로운 해', '뚝는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을 위해서 떠오르신 것입니다.

교만한 자와 악한 자에게 내리시는 심판과는 반대로 말라기 저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사람이 의인이라는 말 아닙니까? 또한 이 사람에게 의로운 해, 바로 치료하는 광선을 비쳐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표현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와 같이 기쁜 일을 신약본문 눅1:78절은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이 시험 보아서 된다든가, 돈 있어야 된다든가, 힘 있는 사람만 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래도 제외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이름만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2003.8.31) 설교요약

대한예수교장로회

주 앙 교 회

JOOANG PRESBYTERIAN CHURCH

표어

말씀으로 은혜가 가득한 교회

기도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

봉사로 사랑을 나누는 교회

선교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
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사 40:31)

담임목사 이 영 제

Pastor Lee, Young Jae

435-050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73-3(제일프라자 5층 본당, 사무실 4층)

교 회 : (031)399-7706 선교회(KCM) : (031)399-7705

목사관 : (031)398-7702 핸드폰 018-213-7702

Homepage : <http://kcm.co.kr> Email : webmaster@kcm.co.kr